

주체조선의 강대한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신념과 의지의 분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출발,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송

1 면에서 계속

조국과 인민의 축복속에 용기있게, 기세 충천하여 나라의 국방력강화의 제1선장으로 떠나는 국방과학전사들의 배스행렬이 대원거리, 동대원거리를 누벼나갔다. 《사회주의진전가》 등의 노래선율이 울리는 연도에서 선교구역, 학원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비례하였다. 당을 따라 국가핵무력완성의 험난한 길을 강인한 의지로 뚫고 헤치며 마침내 강위력한 우리 식의 무기체계를 만들어낸 개발자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믿음어린 경과 전투적인사자 거리들에 넘쳐났다.

다시한번 인아보자,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여!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국가핵무력완성의 데업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한 높이에서 실현한 질사관철의 선구자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터마다에서 기적창조의 열풍을 일으키자는 정양신발공장, 예국전직물공장 종업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열정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우리 당의 발전노선을 앞장에서 용모반철함으로써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부르짖으며 최후발악하는 극악한 원수들에게 다시한번 준엄한 철수를 내린 국방

과학부문 전무원들을 대운 배스행렬은 환송의 꽃물결이 설레이는 유류료를 지나 장전대거리에 들어섰다. 대성구역, 서성구역 녀명원들이 붉은기총을 걸치고 모면봉구역 개선고급중학교의 학생위주악대가 박력있고 기백넘친 노래들을 주악하는 가운데 군중들이 불다발을 흔들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보다 큰 성과를 바랍니다.》라고 외치며 열렬히 환송하였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하는 인민극장과 현대적인 초고층건물들, 봉사시설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락원에서 마음껏 누려갈 부강번영의 광명

한 데일을 확신하는 위훈자들. 수도 평양의 웅장회려한 모습, 시민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보다 높은 비상과 포부, 람구의 일당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떠나는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가 용솟음쳤다. 그들은 당과 조국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심장속에 간직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강용한 기개가 심민 강위력한 주체단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생산하여 주체조선을 그 어떤 원수도 범접 못하는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만방에 빛내여갈 결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

위로 굳건한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우뚝 올려세우기 위한 애국충정의 한길을 뜻깊이 걸어갈 국방과학전사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배스행렬은 만수대거리를 지나갔다.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국문출판사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 입군들의 열렬한 배례움을 받으며 배스행렬이 보통문에 이르자 환송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군중들은 당의 국방공업중시사상과 노선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며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를 실현적모범으로 보여준 미더운 검사대원들처럼 자력자강의 위력으

로 이 땅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원하계일강국을 만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은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 앞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강대한 국력을 힘있게 파시한 기세드높이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조선중앙통신】



